

김정은 시기 “조선옷 전통”의 재구성* 한복 정책을 중심으로

박민주**

이 연구는 한복 정책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당국의 “조선옷 전통” 재구성 작업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그간 전통옷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남성 한복, 조선시대 귀족·궁중 의상, 한복 액세서리 등을 발굴·허용하면서 “조선옷 전통”을 강조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일련의 “조선옷 전통” 재구성 작업은 선제적인 조치라기보다 개인주의적 생활양식, 소비문화의 발달, 화폐의 시장편중과 계층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다. 북한당국과 주민의 일상생활 사이로 전통이 이분화된 가운데, 지난 70여 년간 “조선옷” 전통의 기반을 이루었던 반봉건 이데올로기는 이 과정에서 조용히 삭제되었고 전통옷을 둘러싼 젠더 이분법의 경계도 다소 흐려졌다.

북한당국이 주장해 온 “김일성 민족” 전통은 자기육구를 지닌 주민과 시장에 의존해서야 겨우 그 외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취약한 것이 되었다. 동시에 북한당국은 그 취약한 ‘형식으로서의’ 전통에 기대어야 시장으로 흩어진 개인들을 일시적이거나 ‘민족’ 집단으로 호명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북한 한복, 조선옷, 북한 전통, 전통 재구성, 조선옷 정책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2019 남북 한복 문화교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글이다.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1.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질문

김정은 집권 이후 전에 없던 외부문물과 새로운 기술상품이 북한 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세련된 정장차림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주민은 물론,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아동 상품과 햄버거 가게도 종종 나타난다. 김정은은 화장품 공장을 찾아 해외 화장품 브랜드를 거론하며 품질향상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 북한당국의 ‘현대화’ 작업은 서구화를 동반하는 양상이다.

동시에 북한당국은 ‘전통’의 끈 또한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그래왔듯 주요 행사마다 다채로운 전통의상 차림의 여성을 동원하여 선전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남성에게도 한복차림을 권하는¹⁾ 등 “조선옷” 정책에 변주를 가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²⁾

이 글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이 ‘전통’을 다루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전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³⁾이기 때문에 사회변화가 나타나면 통치자나 지배집단은 변

1) “북한 결혼식 변화 바람… 한복 입는 ‘새신랑’ 늘어,” SBS, 2015년 5월 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96&aid=0000371980>(검색일: 2020년 3월 2일).

2) 이 연구에서는 ‘한복’을 기본 단어 표기로 삼는다. 다만 북한 공간문헌이나 북한 특유의 한복문화를 지칭할 때는 “조선옷”으로 큰 따옴표를 통해 북한식 표현 그대로를 표기하기로 한다.

3) 모리스 알박스가 제시한 “집합기억(집단적 기억)”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권 3호

화에 조응하여 집단 정체성을 관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옷이 지니는 사회적 가시성에 주목하여, 북한당국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전통을 재구성한 양상을 읽어내고자 했다.⁴⁾ 김정은 시기 “조선옷(전통)” 정책은 이전의 한복 정책과 비교하여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변화했는가? 정책의 변화는 북한사회 변동의 어떠한 면모를 보여주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김정은 시기 북한당국의 “(조선옷)전통” 재구성 작업을 추적해 보고자 했다.

2) 연구 내용 및 자료 소개

이 연구는 각 장에서 다음과 같이 세부 내용을 다루었다. 2장에서 오늘날 “조선옷”의 문화적 의미와 그 구성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복 전통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김정일 시대 한복 정책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난 한복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북한당국이 한복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전통을 재구성하는지, 이러한 변주의 작업이 변화하는 북한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옷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북한 공간문헌 중 『로동신문』과 “조선옷” 관련 단행본이다. 단행본은 이유미(1999)가 서술한 『아름다운 조선옷(공업종합출판사)』과 이유미,

(1999), 557-594쪽.

4) 정책에 주목한다고 해서 이 글이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전통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따라 북한당국이 정책에 변주를 가하는 측면에 주목하며, 그 전체적 과정이 모두 재구성 작업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김옥경(2017)이 집필한 『민족의 자랑 조선옷』(금성청년출판사)을 선정하였다. 자료에 나타난 글과 사진, 삽화를 분석하고 시대에 따라 동일한 소재를 어떻게 유사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자료는 2010년 이후 방북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자신의 SNS(사회연결망 서비스) Instagram에 공개한 북한 내 한복차림 사진을 검색,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nstagram을 선정한 이유는, 해시태그와 이미지 중심으로 설계되어 오늘날 사용자가 여행경험과 사진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⁵⁾ 필요한 경우 계정주에게 사진 촬영 당시의 일자, 장소, 기타 내용 등을 문의하였다. 이 외에 필요에 따라 『천리마』, 『조선녀성』, 학술지, 북한이탈주민 증언, 북한당국의 Instagram 선전 계정 dprktoday, 북한 전통의상을 연구한 복식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3)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전통이 당대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관습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홉스봄에 따르면, 전통이란 과거에 준거한다는 점에서 관습과 유사하지만, 의식적으로 공식화·의례화·제도화된다는 점에서 관습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관습이 기술적인 양상이라면, 전통은 기술과 이데올로기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만들어진 전통은 세 가지

5) Instagram의 경우 전체주소를 생략하고 '@계정이름'으로 표기하였다.

6) 홉스봄의 논의는 다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전통들을 발명해 내기,”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장문석 옮김(서울: 휴머니스트, 2010), 19~43쪽.

특성을 지닌다. 첫째, 집단 구성원의 소속감을 구축하고 통합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집단적 통일성을 상징한다. 둘째, 전통은 제도, 지위, 권위체계를 구축하며 정당화한다. 셋째, 구성원에게 신념, 행위규범, 가치체계를 학습시키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화를 유도한다.⁷⁾ 이처럼 전통은 통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전되며 공동체 내에서 수행되면서 집단의 정통성을 구축하고 상징한다.

기억을 활용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통치에 활용한다는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 개념은 알레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의 ‘문화적 기능기억’ 개념과 맞닿아 있다.⁸⁾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을 기능기억과 저장기억으로 분류하였다. 기능기억이란 집단이나 제도 속에서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도적으로 기억을 재생시키는 주체가 존재한다. 반면 저장기억이란 기능기억과 달리 주목받지 못하거나 배제되었던 기억을 뜻한다. 앞서 말한 일상에서 잊혔거나 공식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구전으로 흐릿하게 명맥을 이어오거나 자료로서 남아 있다는 뜻이다.⁹⁾

아스만에 따르면 국가, 민족, 통치자 등 기억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들은 문화적 기능기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기능기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린 시기 소련 사례처럼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당이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저장기억을 파괴하는 특성을 지닌다. 정통성과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려면 ‘전통’의 이름으로

7) 에릭 홉스봄, 위의 책, 33쪽.

8) 아스만의 논의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였다. 알레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옮김(서울: 그린비, 2003).

9) 알레이다 아스만, 위의 책, 179~196쪽.

기억되고 있는 것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존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장기억이 기능기억의 차원으로 소환될 때, 그것은 르네상스처럼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기도 한다.¹⁰⁾ 스탈린 체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배계급이 지양하는 저장기억이 기능기억으로 넘어 온다면 기존의 정통성이나 통치력을 전복시킬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 때로 약간의 이데올로기적 변주가 필요할 때, 그간 주목받지 못한 전통의 저변(저장기억)을 재해석하여 기능기억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일은 오히려 기존의 통치권력을 유지시키거나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저장기억과 기능기억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북한 연구에 적용해 보면, 전통옷이 문화적 기억으로 존재하는 양상은 북한당국이 정체성 구성을 위해 제도화, 의례화하여 활용하는 기능기억의 측면과, 배제되었거나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저장기억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김정은 시기 북한 한복 정책이란,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고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한복을 둘러싼 문화적 기능기억과 저장기억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포괄한다.

북한의 전통옷 관련 연구는 모두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0년 2월 19일 기준, 한국학술문헌정보(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선옷 or 북한 전통옷” 등을 검색하면, 한 장(chapter) 이상에 걸쳐 “조선옷”을 다룬 연구는 총 3건으로 북한학 관점에서 다룬 논문 1건, 복식학 관점에서 다룬 논문 2건이 나타난다.¹¹⁾

10) 알레이다 아스만, 위의 책, 188~189쪽.

11) 김석향·박민주는 북한 여성의 연대별 옷차림 변화를 다루면서 한복착장 관행 일부를 분석하였다. 김석향·박민주, 『북조선 녀성, 장마당 뷰티로 잠자던 욕망을

복식학 관점의 선행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북한의 한복이 정치적으로는 주체사상, 경제적으로는 자립적 경제노선 위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전후 공업발전기 북한당국은 양장을 선호하다가 1990년대부터 “우리식” 문화를 계승한다는 논리 아래 여성에게 한정하여 한복 장려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의와 같은 상류계급 복장은 배제하면서¹²⁾ 체제선전을 위해 오브제, 색채 등 디자인적 요소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모순적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학 관점의 선행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복장려기 조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인하며 한민족의 의상인 한복을 “김일성 민족”의 상징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 한복은 ‘민족성’ 계승/발전이라는 논리로 착장을 권하지만 남성 한복은 일상적이지 않으며 낙후한 것으로 다르게 의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³⁾

깨우다』(서울: 선인, 2019)]. 이 외에 조선옷 정책을 언급하거나 1개 절(verse) 정도 분량으로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들숙, “북한 여성의 의복변화 연구”(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초롱, “1956~2013년 『조선녀성』에 나타난 의복·몸단장 기사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린아, “북한의 복식 정책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슬기,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의생활과 국가·사회관계”(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 외에도 학술논문은 아니나 북한 관련 잡지에 단편이 게재되었다. 조두림, “〈클릭! 통일교육〉 CAMERA FOCUS: 우아한 색과 곡선의 전통미(美), 북한의 한복 “조선옷,” 『통일한국』, 제 410권(2018); 박선영, “한복(조선옷) 애용을 독려하고 대외적 홍보 효과 목적,” 『북한』, 제446호(2009); 박윤식, “교과서로 읽는 북한 이야기 20: 북한의 문화생활 조선옷, 전통음식과 가옥 강조하는 “주체 문화,” 『통일한국』, 제261권(2005).

12) 김여경·홍나영, “북한 전통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服飾』, 제54권 6호(2004); 김여경, “북한 전통복식문화 연구: 조선옷의 전통계승과 현대화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3) 김석향, “북한의 조선옷·민족옷 개념에 나타나는 여성 편중 및 남성 부재 현상,”

일련의 연구들은 김정일 시기 한복권장정책이 사회주의권 붕괴, 배급제 중단 등의 위기에 따라 주민의 사상적 결속을 유도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의미를 이어받으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로 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문화적 기억’ 개념을 통해 전통의 구성적 측면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북한당국의 한복정책이 “아래로부터” 사회 변화에 따라 재편되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전통옷을 둘러싼 북한사회의 지형을 세밀하게 읽어 내려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차별성을 지닌다.

2. “조선옷 전통”의 구성과정: 김정은 이전시기의 정책 흐름

1) 문화적 기억과 실천으로서의 “조선옷 전통” 구성과정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조선옷”이란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적인 형식의 옷”¹⁴⁾을 일컫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한복을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 특히 조선 시대에 입던 형태의 옷”¹⁵⁾으로 정의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복식의 시대적 측면을 규정하지 않는다. 일부러 모호한 정의를 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전통의상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 정의를 내린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전통이나 민족적 형식은 특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2호(2007).

14)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검색일: 2020년 2월 23일).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민족을 “(정치적)운명공동체”로¹⁶⁾ 규정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조선옷”의 의미는 특정한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그것이 소환되는 당시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 “조선옷”이 특별히 제도적 차원에서 전수해야 할 전통이라거나 ‘정신, 민족성’을 내재한 문화적 기억은 아니었다. 물론 한복 치마의 특정한 형태를 높게 평가하는 공적담론이 존재했지만¹⁷⁾ 무조건 한복착장을 권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당국이 여성 대학생의 교복을 양장으로 바꿔 버리거나¹⁸⁾ 담론적 차원에서 한복보다 양장을 권하기도 했다.

오늘 우리 나라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진출하여 집단적인 생활과 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옷은 그들의 활동에 편리하게 양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중략) 물론 시대적 미감에 맞게 옷을 입는다고 하여 양풍을 끌어들이어서는 안되지만 어디까지나 옷은 편리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입어야 합니다.¹⁹⁾

한복은 공급품목이 아니었기에²⁰⁾ 원단 가격이 점차 비싸졌고 무엇보다 북한당국 자체가 주민의 의생활을 ‘관리’하면서도 한복을 전수해

16)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조선말대사전』.

17) “우리는 보기도 좋고 현란한 조선옷긴치마를 민족의 자랑으로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널리 전해야 한다,” “조선옷 긴치마,” 『천리마』, 1985년 8호.

18) 김여경, “북한 전통복식문화 연구: 조선옷의 전통계승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19) “인민생활과 입는 문제,” 『천리마』, 1979년 제6호.

20)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첫날옷”을 해 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고 “아주머니라면 저고리 치마 한 벌은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대다수의 증언이다.

<표 1> 북한당국이 한복착장을 권하는 유형별 의례

유형	예시	그림
국경일 및 정기적 기념일 행사(퍼레이드, 군중모임, 무도회, 동상 헌화)	조선인민군 창건일 “건군절”(2.8.),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출생일(2.16., 4.15.), 정전협정체결일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날”(7.27.), 광복절 “조국해방의 날”(8.15.), “선군절(1960년 선군정치 시작 기념)”(8.25.), 정권수립일 “공화국 창건일”(9.9.), 노동당 설립일 “노동당 창건일”(10.10.), “청년절”(8.28.), 세계 여성의 날 “국제부녀절”(3.8.)	①, ②, ④, ⑤
체제선전을 위한 비정기적 행사	연도환영, 선거, 이산가족 상봉, 대성 백화점 등 시설(재)개장식, 새 집 입주, “혁명”사적지 방문 등	
직업·신분에 따라 권장/의무화	“혁명” 사적지 및 주요 기념지 해설 강사, 해외 북한식당 종사자 출입국 시, 외국인 대상 식당, 여성 대학생, 사범대학 여학생, 교사 등	③, ⑥
결혼식	결혼식 당일 신부 복장(“첫날옷”), 신부 들러리(대방) 착장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9』(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165쪽 재구성.

<사진 1> 의례·행사별 한복착장 사진



자료: @dprktoday(③, ⑥) 제외한 모두; @shaneohodhrain(⑥), 『민족의 자랑 조선옷』(③)

야 할 ‘전통’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경제상황상 대체 품이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여성은 공식행사에서 한복차림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공적 담론의 장에서 전통옷을 크게 거론하지도 않았고²¹⁾ 특별히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조직화하거나 제도화하려는 시도 또한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전통옷에 대한 실천 규범은 시대적 조건뿐만 아니라 동시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다. 2010년 오늘날 조선옷을 누가, 언제, 어떻게, 누가 입는지 살펴보면 북한에서 전통옷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은 특정한 형태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유지, 전수되기 때문이다(Nünning, 2003). 북한당국은 ‘전통’의 지속 수행을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여성에게 조선옷을 착용하도록 의례화를 주문해 왔다. 북한당국이 권장하는 전통옷 입기의 실천은 의례에 따라 <표 1>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 일부 예시는 <사진 1>과 같다.

정리해 보면, 북한당국은 집단적 가치를 전수하거나 정치체제를 선전하는 현장에서 “조선옷”을 요구한다. 결혼식의 경우 북한당국이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북한 사회에서 결혼이 ‘어른이 되는’ 하나의 사회적 통과의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첫날옷(조선옷)” 또한 “조선녀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규범적 생활태도를 상징한다.

조선옷차림새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안겨오

21) 재일동포 복숭 직후인 1960년대 초반 조선옷을 권장하는 담론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으나, 1990년대 이후와 비교했을 때 크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김석향·박민주, 『북조선 여성, 장마당 뷰티로 잠자던 욕망을 깨우다』, 53~55쪽.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옷을 입었을 때 유순하면서도 단정하고 교양있는 조선여성들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나타난다. (중략) 조선여성들의 품성은 레절바르고 상냥하면서도 부드러우며 대가 있는 외유내강한 성격적 특질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정신세계가 맑고 깨끗하고 건전하며 강직한 성품이 굳세게 자리잡은 그러한 마음,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정의로운 감정, 선하고 착한 것에 대한 애착과 따뜻한 정서를 지닌 여성이 전형적인 조선의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²⁾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색시가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식날 새색시에게 조선치마저고리를 입히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라고 하시면서 옷차림에서 민족성을 살려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²³⁾

중요한 것은, 전통옷이 권장되는 일정한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제적 과학기술행사, 호텔, 고려항공 승무원, 맥주축제 여성종사자 착장에서는 한복차림이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몸의 윤곽을 드러내는 서양식 옷차림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식 관행은 북한당국이 과학기술이나 서양식 문화와 관련하여 이익을 취할 경우 한복보다 양장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사진 1-⑦, ⑧>).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행사에서 설명을 담당하는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한복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지만, “세계철새의 날” 행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한복은 권장되지 않는 옷이다. 이런 양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 민족(김석향,

22) 이유미, 『아름다운 조선옷』(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9), 153쪽.

23) “조선옷에 깃든 이야기,” 『로동신문』, 1999년 5월 12일.

2008)성”으로 코드화되어 강력하게 권장되어 온 “조선옷”이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화, 현대화’ 기치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2) 1990년대~2000년대: 김정일 시대 조선옷 전통의 의식적 조직화, 제도화²⁴⁾

한복이 본격적으로 권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전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그 시점으로 한다.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이 제시한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따라 북한당국은 “조선옷 전통”을 의식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과 1995년 전국산업미술전람회 1등은 이유미의 “조선옷도안”이었고 1995년 4월 북한당국은 이유미의 작품 107점을 평양모란봉 극장에 전시하였다.²⁵⁾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배급제가 붕괴하고 시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 이상 북한 주민의 당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상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와 생활양식이 북한 사회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이 데올로기나 일시적 전시회만으로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다소 경제상황이 극복되자 북한당

24) 이 연구는 김정은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2000년대 북한당국이 “조선옷” 전통을 제도화해 나갔던 과정을 소략하게 다룬다. 상세한 논의는 후속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25) 여러 가지 성과로 미루어 보아 이유미는 북한 한복계에서 지위가 확고한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한복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에서 교원으로 종사하였다.

국은 “조선옷” 전통을 의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한다. 김정일은 피복연구사업 강화를 지시하고 “조선옷전문생산기지, 조선옷점을 설립하고 본보기 조선옷을 보급일반화”²⁶⁾ 하도록 했다. 조선옷점의 경우 2000년에서 2002년 2월까지 평양시 인민위원회 편의봉사관리국 차원에서 보통문, 경림, 문흥(일동), 신흥, 평천 등 구역에 약 10여 개의 조선옷점을 증설하였다.²⁷⁾ 또한 2001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한국 한복디자이너 이영희를 초청하여 “이영희 민속의상전”을 개최하였다. 패션쇼 다음 날부터는 평양 시내 박물관에서 작품 20여점을 전시하였다.²⁸⁾ 이는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북한당국이 주민에게 여성의 전통옷 착용을 강조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나름의 워던브랜드를 만들어 한복을 생산하고 평양 백화점 일부에서 판매하기도 했다.²⁹⁾ 2003년부터 식료일용공업성(경공업성의 전신) 부상이 회장을 맡는 “조선옷협회”를 설립하여 조선옷 전시회를 정례화하고 매년 가을(9~11월 중)에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전시, 강연, 기능전수³⁰⁾, 토론, 경연 및 시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내각 및 한복 제조·연

26) “조선옷에 깃든 이야기,” 『로동신문』, 1999년 5월 12일.

27) “평양에 한복점 10여개 늘어나,” NKchosun 2001년 2월 4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3>(검색일: 2020년 3월 2일); “민족옷과 옷차림 레절,” 『로동신문』, 2002년 2월 10일.

28) 이 행사 이후 북한 내부에서 한국식 한복 디자인, 옷감의 질, 색채 등에 대한 반응이 컸던 탓인지 이 패션쇼 이후로 다른 공식 남북 한복 교류는 없었다. “북한의 패션쇼 ‘조선옷 품평회,’” <https://unikoreablog.tistory.com/4814>(검색일: 2020년 3월 2일).

29) “조선옷과 색동옷을 더 많이: 평양조선옷공장에서,” 『로동신문』, 2003년 10월 29일.

구·판매 기관과 각 지역, 여맹 등 다음의 다양한 소속에서 전시회에 참여하였다.³¹⁾ 이러한 제도화 작업은 시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한복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 또한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³²⁾

북한당국은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쥬아 문화를 집요하게 류포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전통’의 의식적 실천이 사상적 와해를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련의 “조선옷” 권장정책은 시장화 이후 급격히 “부르쥬아” 양식으로 이행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일상을 크게 제한하지 못했다.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계층이 나타나고 소비 문화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분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또한 다양해지면서 북한당국이 통제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³³⁾ 2000년대 중반부터 “조선옷” 착장은 민족성에 대한 긍정을 넘어 외부 문물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면 앞서 등장한 1999년의 언설보다 훈계의 어조가 훨씬

30) “제7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 『로동신문』, 2009년 9월 16일.

31) 『로동신문』에 등장한 참여 단체들은 “성(내각), 중앙기관산하 피복제품 생산단 위들, 각지 편의봉사부문, 식료일용공업성(경공업성) 피복연구소, 은하지도국, 보통강구역 종합양복점, 각지 녀맹원들, 피복 부문(일군, 연구사, 기술자), 조선 옷협회, 비단공업관리국 비단기술준비소, 동대원 종합양복점, 서평양백화점, 중구종합양복점, 자강도 단체, 함경북도 단체” 등이다. “제5차 전국조선옷전시회 진행,” 『로동신문』, 2007년 9월 10일; “제8차 전국조선옷전시회 진행,” 2010년 11월 6일; “제4차 전국조선옷전시회 준비사업 활발,” 『로동신문』, 2006년 7월 18일; “제4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 『로동신문』, 2006년 9월 27일.

32) 북한당국이 특정 직업인 “협회, 동맹” 등을 만들 때에는 해당 직무의 표준을 정하고 종사자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지닌다. 또한 관련 부문 전시회를 주최하도록 하고 외부세계와 교류할 목적으로도 이러한 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1986년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을 설립하고 매년 과학기술 해설 담화 및 강연, 과학기술 토론회, 과학기술발표회, 과학기술축전, 기술혁신전시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 바 있다.

33) 김석향·박민주, 『북조선 녀성, 장마당 뷰티로 잠자던 욕망을 깨우다』, 281~295쪽.

강하게 드러난다[각주 22), 23) 참조].

어떤 여성들은 추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어색하고 보기 흉한 옷차림을 하고 (중략) 제국주의자들이 썩어빠진 부르조아문화를 집요하게 류포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중략) 우리 여성들은 옷차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자신들부터가 우리식의 조선치마저고리를 즐겨입고 다니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합니다.³⁴⁾

결혼식 “첫날옷”의 경우 1990년대 말 북한당국 차원에서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하는 대신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모방한 백색 한복 도안을 제시했다(<표 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우리여성들은 부르조아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출판물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여러분야로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결혼식을 선군시대에 맞게 우리식으로 함으로써 (중략) 신부의 머리에 요란스러운 꽃장식을 하거나 우리 민족옷이 아닌 차림을 하는 것은 우리식이 아니다.³⁵⁾

김정일 시기 북한당국은 이렇게 한복 정책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지만 한복을 통해 북한여성의 소비문화나 생활양식을 ‘계도’하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여성 대다수가 가족 생계를 위해 장마당을 오가고 자전거로 짐을 실어 나르는 상황에서 치마저고리를 입으려는 언

34)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 옷차림을 우리식대로 하자,” 『조선여성』, 2004년 12호, 50쪽.

35) “결혼식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우리식으로 하자,” 『조선여성』, 2006년 7호, 50쪽.

설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 사회 전반에서 뇌물을 통한 권력과의 협상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나날이 발달하는 소비문화를 가장 가깝게 경험한 집단이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전통의상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개발보다는 해외문물에 대한 소비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는, 대체품으로서 전통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당국이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우리식” 전통을 활용하는 사이, 북한 주민은 시장을 통해 색채와 디자인이 화려한 중국식 조선족 스타일의 한복을 구매했고 “부르쵸아 문화”도 포기하지 않았다.³⁶⁾ 이처럼 북한당국의 목적적 통치와 주민의 일상적 실천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서 전통은 이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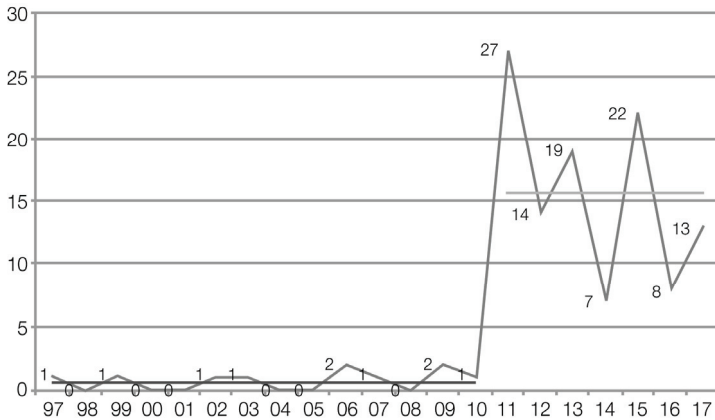
3) 정권이양을 위한 “조선옷” 강조

2011년 한 해 동안 『로동신문』에서 “조선옷, 민족옷, 전통옷” 등 한복을 다루는 기사의 수량은 27건으로 예년의 추세에 비하면 폭증한 수준이다(<그림 1> 참조). 이전에도 『로동신문』에 관련 기사가 등장했지만 최대 2건이었고 지면에 한복 관련 담론이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해가 더 많았다. 또한 한복에 관한 이야기는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보다 위상이 비교적 낮은 조선녀성에 더 많이 게재되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로동신문』에 기사가 훨씬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 조선의 100년, 승리와 기적의 력사 -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

36) 김석향·박민주, 『북조선 녀성, 장마당 뷰티로 잠자던 욕망을 깨우다』, 264~265쪽, 301~308쪽.

<그림 1> 『로동신문』에 나타난 “조선옷” 담론의 연도별 건수



며 백승을 떨치는 우리식 사회주의. (중략)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략)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중략) 민속명절과 민속놀이, 민속음식이 적극 장려되고 (중략) 인민들이 노래를 불러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율에 맞추어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추며 옷을 입어도 조선옷을 즐겨입는 것이 민족성이 꽃피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 민족의 정신력은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은 김일성조국, 김일성민족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다.³⁷⁾

5주년, 10주년을 “꺾어지는 해”로 기념하는 북한식 관행에 따르면, 김일성 출생“100주년”인 2011년은 북한당국이 역사, 민족성, 전통을 명분 삼아 충성을 강조할 ‘좋은’ 계기가 된다. 또한 2010년 9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뒤 북한당국은 후계구도 안정화 작업을

37) “김일성 조선의 100년, 승리와 기적의 력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며 백승을 떨치는 우리식 사회주의,” 『로동신문』, 2011년 6월 16일.

추진하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김일성 민족” 전통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 전통옷이 외세에 맞서 지켜내야 할 ‘현재’의 민족성을 상징했다면, 김정은 집권을 앞두고 전통은 “김일성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에서 한 발짝 나아가 미래의 “부강조국”을 위한 “혈통(후손)” 승계로 의미화되었다. 미래 번영의 원동력은 전통(민족성)을 계승하는 데 있으므로 조선옷을 입듯 김일성의 ‘대를 잇는’ 김정은 세습(전통)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진하자는 것이 그 논리로 나타난다.

3. 전통의 재구성: 김정은 시기 조선옷 정책의 변화

2011년 시작된 『로동신문』 내 한복 담론의 급증현상은 김정은 집권 후에도 지속되었다.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의 경향(연평균 0.7건, 최대수량 2건, 최소수량 0건)에 비해 2011년 이후의 경향(연평균 15.7건, 최대수량 27건, 최소수량 8건)은 증감 변화가 뚜렷해지고 평균 기사 수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은 시기 북한당국은 김정일 시기의 한복 권장 정책을 이어받으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조선옷 전통”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2015년을 기점으로, 그간 배제하였던 남성의 한복차림과 조선시대 귀족·궁중의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 조선바지저고리와 김일성 한복착장 사진의 등장: 젠더질서의 소략한 변화

2015년부터 북한당국은 남성의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조선옷 전시회에 남성 한복이 등장하였고 2015년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퍼레이드에 참석한 남성 일부에게 한복을 입도록 했다. 2018년 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서도 한복착장의 남성이 등장한다(<사진 2>). 물론 여성은 대다수가 한복착장이고 남성은 한복과 양복차림이 혼재해 있었지만, 북한당국도 인정하듯 이전에는 남성 한복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큰 변화라 판단된다.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선조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민족의 감정과 기호, 체질적 특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독특한 남자옷차림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다. (중략) 의례행사와 명절, 실내생활을 할 때 남성들은 대체로 흰 저고리와 흰 바지를 즐겨 입었다. 이 때 나이가 지숙한 남자들은 연한 풀색이나 밤색, 진한 황색이나 채색 등 무게 있어 보이면서도 젊어 보이는 색깔의 짧은 겹옷인 마고자, 등거리 등을 저고리 위에 덧입었다.³⁸⁾

올해에 들어와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을 하고 이곳을 찾는 신랑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중략) 새 가정을 이루는 청춘들뿐이라.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한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가한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의 군중들도, 1만명 대공연에 출연한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의 배우들의 모습도 그 얼마나 멋이 있었던가. (중략) 조선치마저고리가 많이 전시되었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남자들의 기본민족옷차림인 바지저고리와 조끼, 두루마기와 같은 여러 가지 민족옷들이 많이 출품되어 인기를 모았던 것이다. 오늘 각지에서 전통적인 조선바지저고리를 민속명절이나 국가적기념일,

38)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남자옷차림,” 『로동신문』, 2015년 5월 3일.

<사진 2> 2018년 당창건 기념일



자료: @nknews.org

<사진 3> 한복차림의 김일성 사진



자료: 채널 A 뉴스, 2015년 11월 6일.

생일날이나 결혼식날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즐겨입을수 있도록 새로운 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³⁹⁾

<표 2>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2017년과 1999년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 1999년의 경우 여성만 한복차림이었지만 2017년의 경우 남성 한복차림도 등장한다. 또한 1999년에는 신부의 한복이 서양 웨딩드레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신랑은 양복차림이지만 2017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한복차림이며 여성의 한복은 서양 웨딩드레스를 모방한 기존의 양식에서 탈피한 모습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은 북한을 홍보하는 ‘조선의 오늘’ SNS(인스타그램)에 <사진 3>의 김일성의 한복차림 사진을 게재하였다.⁴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한복차림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모습이라는 점에서 김일성의 한복차림 사진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다.

김일성의 한복차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39)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조선바지저고리,” 『로동신문』, 2015년 11월 26일.

40) “한복 입은 김일성...SNS 통해 첫 공개,” 채널 A 2015년 11월 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076963> (검색일: 2020년 3월 2일).

<표 2> 1999년과 2017년에 발간한 한복 관련 단행본 비교

1999년 『아름다운 조선옷』	항목	2017년 『민족의 자랑 조선옷』
	표지	
	신랑 신부	
	남녀 혼성	

자료: 이유미, 『아름다운 조선옷』; 이유미·김옥경, 『민족의 자랑 조선옷』(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7).

북한 체제의 견재함과 역사적 정통성, 나아가 그 손자 김정일의 집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복차림의 김일성 모습이 노년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70주년과 연결 지어보려는 시도라 생각된다. 2015년 봄부터 북한당국이 대내외에 “조선마지저고리차림”의 주민 모습을 공개한 만큼 11월에 김일성 한복 사진을 추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녔음을 선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해방 직후 북한 남성은 바지저고리를 주로 입었고 당시 한복 개량화 또한 활발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진입하면서 남성은 대체로 양복

을 입는 관행이 굳어졌다.⁴¹⁾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양복을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북한 특유의 제도와 맞물려 가부장권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남성을 “바깥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던 기존의 성별고정관념에, 직장에 속한 성인 남성 “세대주”를 중심으로 혼인·혈연가족의 식량이 배급되는 북한 특유의 제도가 중첩되었다. 이처럼 남성의 한복차림은 기능기억이 아닌 저장기억의 영역에 존재했다.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북한당국이 한복정책에 변주를 가하면서 저장기억에 있던 바지저고리를 기능기억의 영역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젠더질서가 뚜렷했던 전통의 실천 영역을 재편할 만큼, “조선옷”의 기능기억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2015년이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이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한복차림만으로는 ‘오랜’ 역사를 강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남성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 착장을 멀리하라거나 성별 편향적 “조선옷전통”에서 사라진 남성을 다시 끼워 넣음으로써 전통의 빈틈을 아예 막아 버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통옷 착장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집단 정체성을 체현/구현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복식에서의 젠더 이분법을 나름대로 다소 완화했다는 점이다. 가부장제와 수령체제가 그간 궤를 같이해 왔고 여전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집단의 비가역적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를 약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배급제 붕괴와 시장

41) 유순례·임순, “해방 이후 남북한 복식문화 비교연구(1),” 『한복문화』, 제9권 2호(2006), 177쪽.

화 이후 자본 축적, 행위성 증가와 더불어 더 이상 북한주민이 북한당국에 의해 완전히 집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말의 화폐개혁 이후 당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신뢰는 최악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된 ‘공통’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집단주의를 다시 복원해 보려는 시도이다.

다만, 오랜 기간 여성 한복에만 치중했던 탓인지 2015년 이후 북한당국이 남성에게 한복착장을 권하긴 해도 남성 한복에 관한 연구나 자료생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흔레옴과 색깔”을 다루면서 남자옷차림은 다루지 않거나⁴²⁾ 여전히 성인 한복 전시회에서 대다수 출품작이 여성 성인 한복으로 나타난다.⁴³⁾ 출판물에 나타난 설명이나 도안 또한 여성옷이 대다수이다.⁴⁴⁾ <사진 2>에서 나타나듯 당창건 기념일 행사에 남성은 한복과 양복차림이 혼재해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당국이 내부 주민이 접속하기 어려운 인스타그램에만 먼저 김일성 한복사진을 게재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 한복을 기능기억으로 소환하긴 했지만, 당장 “최고지도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남성의 한복착장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정은이 김일성에게 그 정통성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이 ‘과거로부터의 개혁’을 집권 논리로 활용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집권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양복/인민복’이라는 상징을 통해 심어 두었던 김일성의 ‘초월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42) 이유미·김옥경, 『민족의 자랑 조선옷』, 79쪽.

43) 이유미·김옥경, 위의 책, 91쪽.

44) 이유미·김옥경, 위의 책, 92쪽.

향후 남성 한복차림이 여성만큼 대중화된다거나, 한복차림을 통해 성별 불평등이 균형을 잡아가는 정도의 변화가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가부장제와 권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사회이다. 또한 남성의 한복차림을 다시 공적 영역(기능기억)으로 끌어낸 이유가 집단 정체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전복하려는 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일말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봉건적” 민속 의상과 한국식 한복의 등장: 시장과 자본에 의존하는 전통

북한당국이 금기시하던 조선시대의 귀족·왕족 차림⁴⁵⁾ 복식이나 화려한 장신구가 전시회나 출판물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진 4>를 살펴보면 사진 좌측에 흰 당의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마네킹이, 우측에 녹색 당의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 하단에는 주황색 당의와 연노랑 치마를 입고 비녀를 꽂은 여성, 뒤편에는 분홍색 당의와 조바위 차림의 여성도 등장한다.

단행본에는 탕건, 정자관, 흑립, 족두리, 아얌 등⁴⁶⁾ 귀족이 착용하던 머리장식도 등장한다. 이전에는 비난만 가하던 “봉건사회 량반층, 선비”에 대해 일견 긍정적인 언설을 드러내기도 한다. <표 3>에 1999년과 2017년 각각 이전의 귀족 한복에 대해 북한당국이 어떠한 입장을

45) 김여경, “북한 전통복식문화 연구: 조선옷의 전통계승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49~50쪽.

46) 이유미·김옥경, 『민족의 자랑 조선옷』, 42쪽.

<사진 4> 단행본 내 조선시대 궁중의상 그림, 조선옷 전시회의 당의, 조바위, 남성한복



자료: 이유미 외, 『민족의 자랑 조선옷』, 32, 34, 31, 49쪽, 강조는 연구자가 표시했다.

<표 3> 1999년과 2017년에 발간한 단행본 서술태도 변화

1999년	2017년
<p>“중세기에 계급적 신분관계로 하여 격차가 심한 옷들의 다양한 형태와 색깔, 장식무늬들은 당대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거기에는 넓고 복잡한 것과 불편하고 비경제적인 것들이 적지 않다 (중략) 귀족, 양반관료들이 입던 옷들과 그들이 쓰던 관모 같은 것들은 현대 우리 생활에서 아무런 의의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아름다운 조선옷, 70~71쪽).</p>	<p>“봉건사회에서 주로 유교학문을 닦는 양반층 또는 그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선비라고 하였다. 선비의 기본옷차림은 도포와 흑립이었다. 흰색의 긴 겹옷과 검은색의 갓이 이루어내는 조화는 마치 학의 색조화를 연상시킨다. 검은것과 흰것의 조화에는 학이 가지는 상징성에 선비들이 추구한 “인품”을 동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선비들이 학을 좋아한 것은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창공을 표가 나게 날아다니는 학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기개때문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봉건사회에서 학의 날개는 곧 “마음의 날개, 정신의 날개”로 인식되었다”(『민족의 자랑 조선옷』, 99쪽).</p>

자료: 이유미, 『아름다운 조선옷』(1999); 이유미 외, 『민족의 자랑 조선옷』(2017).

취하는지 비교해 두었다.

<표 3>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북한당국이 통상적으로 비난해 왔던 “선비” 계층에 대해 부정적 표현이 없다. 이전처럼 신분을 이유로 복장을 금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강한 기개”를 배울 것을 강조한다.

<사진 5> 각종 웨딩촬영 장면



자료: @nknewsorg, @shaneohodhrain

일련의 현상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여 북한당국 또한 이데올로기적 변주를 가미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과거 귀족계층의 의복을 전통으로 복원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기존에 고수하던 “봉건”에 대한 비판을 철회한다거나 형식상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현 체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북한당국의 조치는 김일성이 정통성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반봉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지만, 빈부격차가 점차 뚜렷해지고 시장에 의존하여 작동하는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그러한 봉건/반봉건 논란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족, 왕족의 전통의상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조치는 주민에게 ‘봉건의 옷을 입을지언정 체제를 배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언설이기도 하다. 주민의 자립을 전제하지 않거나 “돈주”를 비롯한 자본가 계급 없이 정치권력 또한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 입장에서는 계급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권력이 완전히 파편화되지는 않도록 나름의 협상 차원에서 민족성의 내용을 재편한 것이다.

또한 일련의 조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이 전보다 훨씬 다층적으로 전통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착장 규범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시장과 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양상이 나타난다.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 품질, 부가가치 등이 소비문

화의 의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이 단순한 통치적 강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민의 욕구와 ‘자발적’ 실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정정도 정책에 반영했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웨딩산업이다. 2010년 이후 결혼식에서 신부가 한복을 여러 차례 환복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미용, 꽃장식, 촬영, 식당 등의 다양한 업종이 결합한 토털 웨딩산업이 성행 중이다. 방북자들의 SNS에는 한복차림의 신부와 양복차림의 신랑이 써비차를 이용하여 웨딩촬영을 나가거나 대동강에서 보트를 타는 모습도 나타난다. 여전히 사회주의의 외연을 유지하는 북한에서 이런 산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공식석상과 규범적 한복 디자인에서 한국식 한복이 나타나는 것 또한 유사한 맥락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식 한복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이 뒤늦게 나름대로 “조선옷의 현대화, 고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방북 당시 이설주가 착용한 한복의 경우 북한에서 흔히 유통되는 중국 조선족 스타일이 아닌 한국식이다.⁴⁷⁾ 높은 목깃, 단순한 무늬, 다운된 톤온톤, 무광, 두꺼운 소매 깃 등이 한국식 한복이라는 점을 드러낸다(<사진 6>).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오늘날 북한당국이 시장의 확산과 함께 흩어진 북한 주민을 하나로 호명하기 위한 효

47) 북한 전통의상을 연구한 복식전문가가 면담 중 제시한 의견이다. 아울러, 우연의 일치일수 있으나, 연구자는 2000년대 중반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 “하늘이시여”에 등장한 주인공 중년 여성이 입었던 한복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 내부로 유입되었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다. 해당 배우의 한복착장 사진을 보면 하늘색 저고리와 연남색 치마, 두꺼운 한복 소매 등의 전반적 모습이 이설주 한복차림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진 6> 평양주민의 한복착장, 이설주 한복, 단행본에 나타난 한복 도안

평양여성의 한복차림(2018) 이설주(2019) 단행본 한복 도안(2017)



자료: @thebluehouse_kr, 연합뉴스, 2019년 6월 20일(캡처), 『민족의 자랑 조선옷』 88, 84, 81쪽

과적 수단을 별로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일성 민족” 정신이 제거되고 ‘양식’만 남은 “조선옷 전통”은 그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인 것이다.

3) 김정은 시기, 전통의 재구성이 갖는 함의

1절과 2절에서 살펴본바, 2015년 이후 북한당국은 김정일 시대에 구축한 전통 의상과 관련한 제도들을 이용하면서도 그 내용을 재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랜 기간 유지된 여성의 치마·저고리 중심의 기존 한복 전통에 남성 한복, 궁중의상, 장식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주민의 소비문화에 맞추어 전통옷의 다양화,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이지 않고 조선옷 전시회, 평양미술대학 의상미술강의 등등을 통해 전수되고 있다(<사진 7>).

그간 배제되었던 항목들을 기능기억으로 재배치시키는 작업은 일차

<사진 7> 평양미술대학 의상미술강좌 수업장면



자료: 『민족의 자랑 조선옷』, 87쪽.

적으로 전통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일체화된 정체성 아래 집단을 묶어내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 전통옷의 범위를 확장하고 전통의 실천 규범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주민이 집단 내에 포섭되도록 시도하는 작업인 것이다.

일련의 작업은 북한당국의 선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북한주민의 소비문화 발달, 빈부격차의 심화와 경제적 계급의 분화, 주민 행위성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조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북한 사회를 작동시키고 주민을 이끄는 주체는 더 이상 수령이 아니라 시장과 자기 욕구 이기에 북한당국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이전과 같은 내용의 집단 정

체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북한당국은 “조선옷”으로 “외세의 문화적 침략”에 맞서 주민의 옷차림을 규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김정일 시기의 전적이 있다. 결국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지난 70여 년간 “조선옷” 전통의 기반이 되었던 반봉건 이데올로기를 삭제하고 젠더 이분법의 경계를 흐려가면서, 뒤늦게 서야 현실에 한 발짝 다가간 방식으로 전통을 재구성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결합, 욕구의 충족을 통해 작동하는 북한사회에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김일성 민족” 전통은 주민과 시장에 의존해서야 겨우 그 외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취약한 것이 되었다. 동시에 북한당국은 그 취약한 전통에 기대어야 일시적이거나 흩어진 개인들을 ‘민족’이라는 집단으로 호명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극장국가”⁴⁸⁾ 북한당국은 “조선옷 전통”의 외연을 유지함으로써 ‘일체화된’ 집단의 안녕과 통치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전통옷차림의 군중을 프레임에 담아 착시를 유도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ICT가 확산된 오늘날 평양이라는 극장에서 벌어지는 공연과 전시회 현황은 북한 내부는 물론 해외로도 생생하게 전달된다. 북한당국 스스로 홍보 SNS에 “조선옷” 차림의 군중 모습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여행자들은 자신의 ICT기기로 이 장면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고 북한과 관련한 단어들을 태그한다(<사진 8>, <사진 9>).

48) 외부세계를 의식하여 가시적 장면을 연출해 내는 북한당국의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학자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과주: 창비, 2013); 제스퍼 베커(Jasper Becker), 『불량정권』, 김구섭·권영근 옮김(서울: 기과량, 2005).

<사진 8>

청년무도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료: @polina.popravka

<사진 9>

청년무도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료: @robintks

4. 결론

이 연구는 알레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에 기반하여 한복 정책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당국의 “조선옷 전통” 재구성작업을 분석하였다. 『노동신문』과 북한에서 출판한 조선옷 관련 단행본, 방북자의 SNS 등을 주요 분석대상자료로 삼았다.

북한당국의 “조선옷 전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어 왔다. 동시대라도 여성의 한복착장이 권장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한복보다 양장을 권고하던 1970~1980년대와 달리 사회주의권 붕괴가 일어난 1990년 이후에는 지속적 한복 권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도 상세한 내용에서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조선 민족제일주의”논리에서 출발한 “조선옷 전통”은 ‘자본주의적 공격’으로부터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행위로 상징되었다. 김정일 후계구도를 수립하던 2011년에는 한복 담론을 통해 전통옷을 입듯 “김일성(민족) 혈통을 세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우리식” 정체성을 요구하는 동안 여성들은 시장에서 더 화려한 ‘중국

식' 한복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식 옷차림'도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의 일상과 북한당국 사이에서 전통은 이분화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김정일 집권 당시 만들어 둔 제도, 의례 등의 하드웨어를 기반 삼아 2015년부터 “조선옷 전통”을 재구성하고 있다. 남성 한복, 조선시대 양반·궁중 의상, 한복 액세서리 등 기존에는 주변화되어 저장기억으로 존재하던 한복의 일부 형식들을 기능기억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조선옷 전통”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전통옷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체현/구현하도록 하려는 일차적 목적을 지닌다. 또한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소비문화 수준에 맞추어 한복의 고급화,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련의 작업은 북한당국의 선제적인 조치라기보다 북한주민의 소비문화 발달, 빈부격차의 심화와 경제적 계급의 분화, 주민 행위성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뒤늦게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다. 북한 사회를 작동시키고 주민을 이끄는 주체는 더 이상 수령이 아니라 시장과 자기 욕구이기 때문에 북한당국 또한 기존의 방식과 내용으로 전통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결국 북한당국은 지난 70여 년간 “조선옷” 전통의 기반이 되었던 반봉건 이데올로기를 삭제하고 젠더 이분법의 경계를 완화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결합, 욕구의 충족을 통해 작동하는 북한사회에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김일성 민족” 전통은 주민과 시장에 의존해서야 겨우 그 외연이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취약한 것이 되었다. 동시에 북한당국은 그 취약한 ‘형식으로서의’ 전통에 기대어야만, 시장으로 흩어진 주민들을 일시적이거나 ‘민족’ 집단으로 호명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나름대로 과감하게 “조선옷 전통”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정은의 유학경험이 유연성을 발휘하게 한 측면도 존재했을 것이나 사회변화를 이끌어 간다기보다 종속변수로서 존재하는 양상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당국의 문화적 변주 작업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30일 / 채택: 4월 6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이유미, 『아름다운 조선옷』(평양: 공업종합출판사, 1999).

이유미·김옥경, 『민족의 자랑 조선옷』(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7).

2) 신문

『로동신문』 1999년 5월 12일; 2002년 2월 10일; 2003년 10월 29일; 2006년 7월 18일; 2006년 9월 27일; 2007년 9월 10일; 2009년 9월 16일; 2010년 11월 6일; 2011년 6월 16일; 2015년 11월 26일; 2015년 5월 3일.

『조선녀성』, 2004년 제12호; 2006년 제7호.

『천리마』, 1979년 제6호; 1985년 제8호.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과주: 창비, 2013).

김석향·박민주, 『북조선 여성, 장마당 뷰티로 잡자던 욕망을 깨우다』(서울: 선인, 2019).

베커, 제스퍼(Jasper Becker), 『불량정권』, 김구섭·권영근 옮김(서울: 기과량, 2005).

아스만, 알레이다(Aleida Assmann), 『기억의 공간』, 변학수·채연숙 옮김(서울: 그린비, 1999;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9』(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2) 논문

김린아, “북한의 복식정책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석향, “북한의 조선옷·민족옷 개념에 나타나는 여성 편중 및 남성 부재 현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2호(2007), 75~100쪽.
- 김슬기,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의생활과 국가-사회관계”(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여경, “북한 전통복식문화 연구: 조선옷의 전통계승과 현대화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여경·홍나영, “북한 전통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服飾』, 제54권 6호(2004), 53~64쪽.
-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권 3호(1999), 557~594쪽.
- 김초롱, “1956~2013년 『조선녀성』에 나타난 의복·몸단장 기사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선영, “한복(조선옷) 애용을 독려하고 대외적 홍보 효과 목적,” 『북한』, 제446호(2009), 113~116쪽.
- 박윤식, “교과서로 읽는 북한 이야기 20: 북한의 문화생활 조선옷, 전통음식과 가옥 강조하는 “주체 문화”, ” 『통일한국』, 제261권(2005), 100~101쪽.
- 신들숙, “북한 여성의 의복변화 연구”(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유순례·임순, “해방 이후 남북한 복식문화 비교연구(1),” 『한복문화』, 제9권 2호(2006), 173~181쪽.
- 조두립, “<클릭! 통일교육> CAMERA FOCUS: 우아한 색과 곡선의 전통미(美), 북한의 한복 “조선옷”, ” 『통일한국』, 제410권(2018), 66~67쪽.
- 홉스봄, 에릭(Eric Hobsbawm), “전통들을 발명해 내기,”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장문석 옮김(서울: 휴머니스트, 2010).

3) 기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검색일: 2020년 2월 23일).
- “북한 결혼식 변화 바람…한복 입는 ‘새신랑’ 늘어,” SBS, 2015년 5월 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96&aid=0000371980>(검색일: 2020년 3월 2일).

북한의 패션쇼 ‘조선옷 품평회’,” <https://unikoreablog.tistory.com/4814>(검색일: 2020년 3월 2일).

“시진핑, 김정은 주최한 환영 만찬 참석 ... 리설주 한복 돋보여,” 연합뉴스, 2019년 6월 20일, <https://www.youtube.com/watch?v=XQOjeS1aGvg&t=19s>(검색일: 2020년 3월 2일).

“평양에 한복집 10여개 늘어나,” NKchosun 2001년 2월 4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3>(검색일: 2020년 3월 2일).

“한복 입은 김일성...SNS 통해 첫 공개,” 채널 A 2015년 11월 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076963> (검색일: 2020년 3월 2일).

* 인스타그램: @dprktoday, @nknews.org(Korea Risk Group), @polina.popravka, @robintks, @shaneohodhrain, @thebluehouse_kr

Reconstruction of “Chosŏn-ot Tradition” in the Kim Jong-un Era

Park, MinJu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ditional-clothing policy and analyze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reconstruction work of “Chosŏn-ot tradition” during the Kim Jong-un era. Since Kim Jong-un took power, the authorities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Chosŏn-ot tradition” and allowed men’s traditional clothing, royal court costumes and accessories that had been excluded from the tradition. Rather than a preemptive measure, a series of “Chosŏn-ot tradition” reconstructions has emerged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such as individualistic lifestyle, development of consumer culture, and market bias and stratification of capital. Anti-feudalism, which has been the basis of the “Chosŏn-ot” tradition for the past 70 years, has been quietly deleted in the process, and the boundary of the gender dichotomy surrounding traditional clothes has also become somewhat blurred. The “Kim Il-sung ethnic” tradition, whic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upheld, has only

become vulnerable to maintaining its outer space by people relying on the markets to meet their needs.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facilitating tradition as ‘form’ among individuals dispersed in the markets, calling individualizing individuals in the name of ‘ethnicity’. The reorganization of the “Chosŏn-ot tradition” clearly illustrates the fracture in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attempts to address it after Kim Jong-un took power.

Keywords: Hanbok in North Korea, Chosŏn-ot, North Korean tradition, reconstruction of tradition, traditional-clothing policy